

대학 캠퍼스 내 조각과 공간의 특성 및 관계 연구

이서영* ·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1. 연구의 제목 및 목적

서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근대화과정에서 도심을 무분별하게 파괴함으로써 그 결과 지금은 뚜렷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 매우 혼란스러운 도시 이미지를 안고 있다. 1960년대 이후로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은 기존에 일궈 온 우리의 여가와 문화의 가치를 외면한 채, 물리적 환경을 증가시켰다. 그로 인해 오늘날의 도시환경은 급속한 인구집중과 차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발생 등의 물리적인 환경악화에 더하여 건물의 고층화 인구의 고밀도화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인간을 포용하는 삶의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삶의 수단을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서민정, 2004).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통하여 인간에게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사회의 교육·문화적 측면을 담당하는 대학 캠퍼스가 도시 내에서 높은 비율의 오픈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인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외부공간도 단순히 휴식만을 위한 기능에서 탈피하여 문화적 욕구의 수용이나 예술성이 가미된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휴식처이며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곳으로 야외조각공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이병준, 2000). 대학 캠퍼스의 공간은 교육적인 목적과 인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조각을 이용한다. 조각 작품이 있는 교육환경은 정서적인 생활의 장소인 동시에, 바람직한 인간상의 꿈을 키우는 장소이다(김철기, 1991). 이러한 조각 조성 공간에 관한 관심은 많아졌지만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또 공적공간에서 조각의 연구는 있어도, 교육공간의 조각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캠퍼스 내에 있는 조각 조성공간을 대상으로 공간입지, 형태, 그리고 조각의 재료와 형태, 표현양식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둘 사이의 미학적 특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43곳 중에서 22곳을 조사하여 85개소의 조각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조사하였다.

표 1. 캠퍼스 조각 조성 공간의 수

대학교명	조각 조성 공간 수	비고
건국대학교	7	
경희대학교	3	
고려대학교	5	
국민대학교	2	
광운대학교	2	
동국대학교	9	
삼육대학교	2	
서강대학교	3	
서울과학대학교	2	
서울교육대학교	3	
서울대학교	8	
서울여자대학교	2	
서울시립대학교	4	
성균관대학교	7	
성신여자대학교	2	
세종대학교	3	
승실대학교	5	
연세대학교	5	
이화여자대학교	3	
중앙대학교	5	
한국외국어대학교	2	
홍익대학교	1	
총합	85	

2. 연구의 방법

1 단계 예비조사에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공간의 유형과 분류, 조각의 분류기준(재료, 색상, 표현양식, 구성, 형태)과 조각이 조성된 공간의 구성에 관련된 기준을 나누어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2 단계는 현장조사로 서울시의 소재한 4년제 대학 캠퍼스를

조사하며 조각이 조성된 공간 22곳을 선정하여 평면도 및 관련 사진을 수집하여 조사대상별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문헌 및 기사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야외조사에서 얻은 조각물과 주변 공간 요소를 파악하고 공간 입지와 조각과의 관계, 공간 형태와 조각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III. 공간 및 조각요소 분류기준 설정

1. 공간 분류기준 설정

공간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공간의 성격, 구성기법, 진입방법, 축, 캠퍼스 내 작품위치, 공간 내 작품위치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외부공간의 유형과 분류의 기준은 있으나, 캠퍼스 공간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방법을 만들었다(보진재, 1998).

표 2. 공간의 유형과 분류

분류기준	구분	기호	비고	
성격에 의한 분류	과정적 공간		캠퍼스 안에서 조각 조성공간의 위치	
	주요 공간			
	부 공간			
	매체 공간			
	승화 공간			
표현기법	장방형		공간의 형태	
	부정형			
	요철형			
	'단' 자형			
	'回' 자형			
	결절형			
	'몸' 자형			
	연결형			
	층이 있는 공간	일자 공간		
		"L" 형 공간		
Interlocking 외부공간의 엮물림				

	교류형		
	원형		
진입방법	계단		진입방식의 분류
	평지		
	마운딩		
축	직선형 축		조성 공간 안에서의 조각의 위치
	곡선형 축		
	교차형 축		
	평행형 축		
	자유형		
캠퍼스 공간기능	진입 공간		캠퍼스 내 조성공간의 기능
	녹지		
	광장		
	건물전면 광장		
	수공간		
		보행로	

2. 조각의 요소와 분류기준 설정

조각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크게 작품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으로 크기, 구성개수, Mass의 형태, 좌대 유무 등으로 나누었고, 작품의 표현양식도 기준으로 하였다(이경진, 2003). 또한 작품의 재료요소로서 재질, 색채, 광택 등을 구분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옥외조각의 물리적 요소를 분류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 캠퍼스에 조성된 조각 실정에 맞게 설정되었다고 생각되어 분류기준을 활용하였다(최병준, 1999).

표 3. 조각의 형태와 표현양식 분류

분류기준	구분	비고	
물리적 요소	크기	소형작품 (높이 2m 미만)	
		중형작품 (높이 2~5m 미만)	
		대형작품 (높이 5~10m 미만)	
		초대형작품 (높이 10m 이상)	
Mass의 형태	선재		
	면재		
	양재		

	구성 개수	1개 덩어리	
		2개 덩어리	
3개 덩어리 이상			
	작품 좌대	유	
		무	
재료	재질	스테인리스	
		석재	
		철재	
		청동	
		콘크리트	
		합성수지	
		목재	
		알루미늄	
		테라코타	
		석고	
		도기	
	혼합형		
	무채색	무채색	
		유채색	
	광택	유	
무			
표현 양식		추상작품	
		추상작품	
		구상작품	

IV. 결론

1. 공간의 요소 특성

1) 대학 캠퍼스 조각 조성 공간 특성

대학캠퍼스에 조각이 조성된 공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공간 성격에 의해 분류를 해보면 37.6%가 주요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부공간에 설치되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과정적 공간이 29.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화 공간에 18.8%로 16개 조각이 조성되어있으며, 주요공간은 10개, 주요공간과 건물 사이의 매체공간에서는 2개의 작품만이 설치되었다.

구성기법으로 공간을 분류해 보면 장방형과 부정형이 각 2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성되었다. 상관공간이 9개소, 요철형 공간이 5개소, 원형과 'ㄱ' 자형 공간이 각 4개소 'L'자형 층단형은 2개소, '回' 자형, '뿔' 자형, 결절형은 각 1개소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방법으로는 평지가 7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25.8%로 22개 공간이 계단을 이용하고, 오직 1곳이 마운딩 위에 조각을 설치하였다

조각이 공간에 설치된 위치를 보면 가장 많은 38%가 공간과

평행한 곳에 설치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자율적으로 설치한 곳이 25곳, 직선에 의한 축에 설치된 경우가 16곳, 교차된 축에 설치한 곳은 11군데로 가장 적었다.

조각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공간은 48%로 광장에 41개의 조각이 설치되었으며, 녹지는 19개소, 건물 전면 광장은 7개 설치되었으며, 나머지는 진입부, 수공간, 보행로 순으로 설치되었다.

2. 조각의 요소 특성

1) 조각의 물리적 요소 특성

조각의 크기는 초대형이 39개 설치되어 있고, 소형이 19개, 대형이 15개, 중형이 12개로 큰 스케일의 조각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각의 메스는 양재형태가 94%로 조각의 구성은 1가지의 덩어리 형태가 88%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각의 좌대는 52%가 사용하고 있다.

2) 조각의 표현 양식

캠퍼스에 설치된 조각은 54%가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42%가 구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3) 조각의 재료요소

캠퍼스에 설치된 조각의 41%는 석재이며, 그다음으로 청동과 석재의 혼합이 25%, 청동이 21%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합성수지, 콘크리트, 스테인리스가 사용되었지만 재료의 수가 적음으로, 캠퍼스에 조각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양하지 않으며 한정적이다.

3. 공간과 조각사이의 상호관계

본 연구는 대학 캠퍼스의 조성된 조각과 공간의 특징 요소를 파악하여, 둘 사이의 상호관계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캠퍼스의 중심성을 조성하는 조각 조성 공간

조각과 조각 조성공간은 캠퍼스에서 중심성을 나타내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며, 이런 공간의 유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로 주요 건물(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앞 광장에서 설립자 동상과 학교에 기여한 사람의 인물상이 설치된 유형이다. 이 공간은 주 건물과 정문이나 주 진입로를 축으로 설정하고, 그 위에 조각을 설치한다. 조각에는 설립자와 기여자의 이념, 슬로건, 비전 등의 언어적 요소가 시각적 요소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고려 대학교의 '인촌 김성수 선생 동상'과 중앙대학교의 '임영신 박사 동상', 성신여자대학교의 '윤정 리숙중 학원장 동상'이 있다. 이 조각은 학교의 주요 건물인 본관과 도서관 건축 전

면부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을 주위 배경으로 사용한다. 또한 받침대 위에 인물 동상을 올려놓았는데, 이는 조각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상징을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중앙광장에 학교의 상징 조각을 설치하여서 중심적 공간으로 조성되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건국대학교의 '황소 상', 동국대학교의 '코끼리 상', 성균관 대학교의 '그루의 은행나무'와 같은 학교의 상징이 있다. 이 광장은 개방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장방형 공간이고, 캠퍼스의 중심으로 주변공간을 발달해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설치된 조각은 캠퍼스 내 다른 조각보다 스케일이 커서 랜드 마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대학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조각 조성 공간

대학 정문에 조각 조성 공간 유형이 대학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공간이 된다. 대학 정문은 주동선이 지나가며, 외부에도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뿐만이 아닌 외부에서도 접촉빈도가 높은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 대학의 이미지를 상징화 하여 시각적인 요소로 조각을 설치하는데, 대표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정문조각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교화를 상징으로 벽을 조성하였고, 서울대학교는 '서울', '국립', '대학'의 각 단어의 첫 자음을 합쳐서 '샤자' 모양의 조각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문에

조성된 조각은 시각적 요소로 대학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육대학의 '사슴 조각'처럼 학교의 상징 동물로 조각을 조성했지만, 조각 규모가 작고 캠퍼스 부지 안에 조각이 설치가 되어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효과를 보지 못하여서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상징이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조각공간은 공간과 조각의 맥락이 잘 어우러지게 조성되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순수 예술적 목적을 가진 조각은 공간이 부실하게 조성되었다. 대학 캠퍼스는 단순히 상업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교육공간이다. 앞으로의 이용자들은 보다 나은 외부공간을 찾으면서 문화적·예술성이 가미된 공간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용적 목적이 아닌 심미적인 조각과 조성공간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서민정(2004)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디자인 연구.
2. 이병준(2001) 조각공원의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3. 김철기(1991) 환경과 조각. 도서출판 대우.
4. 보진재(1998)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5. 이경진, 정우진(2003) 야외조각공원의 조각물 주변 환경요소 특성 및 선호에 관한 연구.
6. 최병준(1999) 옥외조각에 있어서 환경과 object의 조화를 위한 연구.